

## 2012 년의 글로벌 도전

강연자: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국제통화기금 총재

베를린, 2012 년 1 월 23 일

안녕하십니까? 독일은 유럽, 세계 경제 및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독일이 없이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유로 지역 경제의 중심인 독일이 피해를 입습니다. 저는 지난 50 년 간 세계에 대한 독일의 역할에 대한 토론에 앞장서 왔던 독일 외교 관계 협의회가 이 점을 강조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제가 매우 존경하는 좋은 친구인 메르켈 총리와 쇼이블레 장관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소란스러웠던 한 해, 그리고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던 대부분의 상황이 실제로 악화되었던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취업 기회의 감소, 불균형의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IMF 가 내일 발표할 경제전망에서 전세계의 대부분의 지역에 대해 성장 예측을 낮출 것입니다. 이러한 낮은 예측도 결코 보장할 수 없는 건설적인 정책의 시행을 가정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요와 대출 의욕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 부채가 많아 경제 전망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현재와 같이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흥시장에 대한 자본의 흐름은 이미 감소했고, 성장은 세계 경제의 가장 활발한 지역에서도 지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소득 국가들이 특히 취약합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인 증상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집단적 비관주의에 빠지기 전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2011 년은 왜 그렇게 나쁜 해였을까요?

저는 세계 경제에 새로운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것은 협력적인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한 집단적인 결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11 년에 유럽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 부채 상한선이 붕괴된 미국에서, 많은 잘못된 시작과 절반의 조치를 보았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정책입안자들이 오래된 상처를 벗어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12 년은 치유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래 전에 히포크라테스는 “치유는 시간을 필요로 하나, 때로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1930 년대의 상황”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신뢰와 협력이 붕괴되고 국가들이 내향적이 되는 상황,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세계를 집어삼킬 수 있는 끝없는 추락을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희망적입니다. 저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방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할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경제전망이 여전히 매우 우려되고 있으나, 헤쳐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일들을 실행할 정치적인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추진할 정책 경로의 주요 요소들을 다음과 같은 3 가지 주요 측면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 첫째, 유로존에 대한 정책 경로
- 둘째, 세계의 다른 지역의 역할
- 셋째, IMF 의 특별한 역할과 책임

## 유로존의 정책

저는 문제의 중심인 유럽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그 이유는 이 지역이 대표하는 역사적인 프로젝트 때문만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무역 및 금융에 대한 연계 때문입니다.

저는 유럽의 위기에 정면으로 대처하기 위해 먼저 유로존이 이 지역이 직면한 새로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유로존 국가들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사용하여 초국가간 안전망을 구축했고, 영구재정안정기구(ESM)를 사용하여 이 기금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2 년 전만 해도 이것은 정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은행 자본을 재구성하기 위한

조화된 접근방법을 채택했고, 체계적 위험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재정규율을 시행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개별 국가들은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힘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은 은행들에게 장기적인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인상적인 재원을 방출했습니다.

이러한 주요 조치들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단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도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점점 더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3 가지 긴급한 과제는 *강력한 성장, 대규모의 방화벽, 심층 통합*입니다.

첫째는 *강력한 성장*입니다. 이것에는 다양한 차원이 있습니다.

유로 지역의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미 감소하고 있고, 저희는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보다 훨씬 낮아져서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성장을 더욱 저해하는 상당한 위험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통화의 추가 및 적시 완화가 중요합니다.

또한 강력한 성장은 은행이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고 시장의 압력에 직면하여 신용을 축소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결책들은 대출을 삭감하는 대신에 자본금 수준을 높여 자본 *비율*을 증가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질서 있는 자금 조달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유럽 대륙 전체가 일률적인 예산 삭감 정책에 의존하는 것은 경기 침체 압력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몇몇 국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급격하고 신속하게 긴축 재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 조정을 점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가 취약할 때 세금 수입을 줄이고 공공 지출을 늘리는 자동 안정 장치를 가동하는 것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적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금년에 계획된 조정의 속도를 재고함으로써 공동의 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들은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여전히 할 일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기 또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구조적인 개혁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이 말해주듯이, 재정 건전성은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둘째로, *대규모의 방화벽*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근본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국가들은 비정상적인 금융 비용 때문에 지급 불능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 안정성에 심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FSF를 ESM으로 대체하여 현재 사용 가능한 재원에 상당한 실물 재원을 추가하고, ESM의 규모를 증가시키고, 이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정을 수립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은행의 자금 조달과 국가부채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는 ECB의 조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은행이 국가에 피해를 주고 국가가 은행에 피해를 주는 악순환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2가지 방법으로 작용합니다. 적정한 자본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은행을 강화하면 은행이 높은 부채나 우발채무를 통해서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국가부채의 중요한 보유 기관이고 보통 국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장에서부터 이익을 얻기 때문에 국가부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은행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세 번째 주안점인 *심층 통합*으로 연결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위기는 불완전한 통합에서 초래됩니다. 유로 지역 수준에서는 기본적 경제지표가 양호합니다. 경상수지는 균형이 잡혀있고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는 모두 낮습니다. 그러나 유로 지역은 역내 불균형을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또한 단일 금융 시장은 불균형한 국가 기반에서 운영되는 법적, 제도적 체제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국가와 은행 사이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려면 은행 시스템에 대해 국가들 간에 더 많은 위험을 공유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직접 은행 지분을 인수할 능력이 있는 범유로 지역의 금융 지원 제도는 이러한 연결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장기적으로 전망할 때, 통화동맹은 통합 감독, 공동 백스톱이 있는 단일 은행 정리 권한, 그리고 단일 예금 보험 기금의 형태를 취하는 금융 통합에 의해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유로 지역은 더 많은 재정 통합이 필요합니다. 17 개의 완전히 독립된 재정 정책이 1 개의 통화 정책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위기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재정 협약”을 보완하려면 한 국가의 경제 혼란이 유로 지역 전체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위기로 번지기 전에 공동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형태의 재정 위험 공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험 공유를 지원하는 많은 금융 옵션이 있으며, 이러한 옵션에는 유로 지역 채권 또는 환어음의 발행, 또는 독일 경제자문위원회가 제안한 부채상환기금의 설립이 포함됩니다. 위험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연대 채권에 대한 정치적 합의도 유럽경제통화동맹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시장에 확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세계의 다른 지역의 정책

이제 두 번째 광범위한 분야인 세계의 다른 지역의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지 유럽이 현재의 위기의 진원지이고, 따라서 세계 경제 전망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도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최소한 유럽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국이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회복되고 있으나 속도가 느리고,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주요 정책은 가계부채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공공부채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택 문제에 대해 모기지 부채를 건딜 수 있는 방법(쉽게 결손 처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포함)을 강구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저는 법적,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재의 방법은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공공부채 문제에 대해 의회의 교착상태를 타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현재의 경제를 침체시키지 않고 미래의 재정적자를 축소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복지 혜택을 개혁하고 세입을 증가시키는 것 포함).

앞으로 여러 분기 동안 나타날 또 하나의 우려되는 경향은 재정정책을 낭비와 책임 사이에 도덕성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정치적 논평과 시장의 논평은 종종 이러한 용어들을 너무 남발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재정긴축에 대해 모순된 태도를 보여왔으며, 때로는 금리를 인하하여 보상을 하고 성장 정체가 예상될 때에는 뒤로 물러서서 금리를 인상합니다.

저희의 조언을 반복하면, 중기적으로 절약을 제공 및 정착시키는 신뢰할만한 조치는 재정 건전화의 속도를 늦춤으로써 *현재*의 성장을 수용할 여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지역과 국가들은 어떨까요?

일본은 향후 수년 간 공공부채를 줄일 신뢰할만한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방도가 없습니다. 또한 일본은 장기적인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개혁을 실시해야 합니다.

선진국 또는 신흥국을 불문하고 경상수지가 흑자인 국가들은 주로 국내수요를 해외로 전환함으로써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흑자가 축소되어야 글로벌 적자도 축소됩니다.

중국은 성장 동력을 수출과 투자로부터 소비로 전환함으로써 자국 및 세계 경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가계소비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금융 시스템을 자유화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이러한 모든 개혁을 채택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금융규제를 정책 의제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일으킨 금융부문을 계속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물경제의 안정성을 해치는 대신에 도움을 주는 더 안전하고 안정된 금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정책입안자들은 많은 성과를 달성했으나, 아직도 개혁 의제를 완료해야 하고 새로운 기준을 모든 국가에 대해 일관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IMF의 역할

이제 3 번째이자 마지막 주안점인 IMF의 역할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협력 경로란 명확하게 모든 국가가 공동의 진단을 하고 공동의 해결책을 얻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MF의 주요 역할은 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에 대해 설명하고 목표한 결과를 얻기 위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IMF는 분석, 조언, 권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구는 필요할 때 금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금의 대출 규모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유럽이 제시할 재원을 보충하는 것이지만, 또한 전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전염병에 감염된 “선외의 방관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계화된 세상에서는 글로벌 방화벽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향후 수년 간 글로벌 금융 필요가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IMF는 이러한 필요에 대한 부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최대 5,000억 달러의 추가 대출 재원을 모금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옵션을 검토 중이고 회원국들과 상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IMF는 자원 이외에도 자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때 좋은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한 “자발적 구속 기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IMF에 자국의 정책들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 이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유럽 구제금융”에 대한 무책임한 이야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의 금융은 유로 지역이나 다른 지역의 모든 회원국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는 지원을 요청하는 개별 국가들에 대해서만 자금을 대출하고 강력한 정책을 실행합니다. 따라서, 유로 지역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전체 유로 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책 운영 체계 내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저희는 회원국들의 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출을 할 때는 지속 가능한 부채 상태를 유지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의 역할은 민간금융을 촉진하는 것이지만 무한정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 맺음말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나,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정책입안자들이 중대한 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2차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이처럼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유럽인들의 좌절을 이해합니다. 통화동맹은 모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으나, 대서양을 가로질러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취약점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또한 저는 유럽인들이 그들이 내린 어려운 결정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저는 세계의 다른 지역의 좌절도 이해합니다. 그들은 2008년의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유럽의 문제로 경제 회복이 다시 무산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위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 충분할 만큼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대륙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그러한 방안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유럽 국가들이 느끼는 고통과 그 고통을 사회적으로 공정한 방법으로 분담하는 것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유하지 않은 국가들이 경제를 현명하게 관리하지 못한 국가들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기분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지금이 중대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국가나 한 지역을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추락하는 경제로부터 세계를 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조치, 고립, 경직된 이념이 혼합되어 세계경제를 붕괴시킨 1930년대의 공황을 재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래 기다릴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함께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경제의 미래는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독일은 공고한 단결의 미덕을 어느 국가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와 통일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공동선을 추구할 때 달성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는 독일의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독일의 핵심적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제 괴테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적용해야 합니다.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행해야 합니다.” (*Es ist nicht genug, zu wissen, man muß auch anwenden; es ist nicht genug, zu wollen, man muß auch tun*). 이것이 우리가 금년에 도전해야 할 과제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